

도서관의 자랑



1954년도에 19세의 젊은 나이로 도서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근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책과 더불어 살아왔다. 6.25동란 후 분산된 책들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7만권에 이르는 한국본 규장각 도서정리, 고서정리 등 많은 어려운 과업을 완수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왔다.

이상은씨(열람계장)

특히 20년에 가까운 근무생활의 대부분을 열람과에서 지내온 그는 가히 살아있는 도서관의 사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전에 수집된 구간 동양서에 관해서는 특히 정통하여 동양학 전공교수로서 그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을 조사하러 대구, 부산등 먼곳에서 오신분도 그가 없는 경우는 그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는 이토록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학생들이나 교수들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친절과 봉사를 신조로 삼고 있다. 그러기에 그의 도움을 한번 받은분은 꼭 잊지 않고 도서관에 들리는 길에는 그를 찾는다고 하며, 특히 그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일은朴鍾鴻 교수께서 한국학연구 자료 수집에 대한 그의 노고에 감사하여 그에게 「韓國思想의 方向」등 저서를 기증하신 일이다.

구간 도서목록을 romanize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그는 53만권의 구간도서가 그의 손을 한번씩은 다 거쳤을 정도로 책의 소재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책을 사랑하고 책을 아끼기에 사서의 박한 봉급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서관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한다. 3남을 슬하에 거느리고 있는 그로서 현재의 박봉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나 이보다 도서관의 시설미비로 귀중한 고서가 파손되고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